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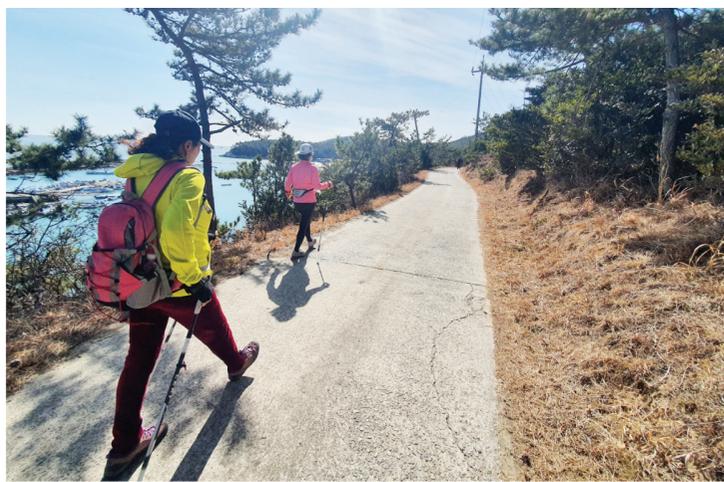
전국 최초 '어린이 공룡 과학체험관' 해남에 들어선다

해남군, 우항리 공룡화석지 내 '마이 프렌드 디노' 주제 조성 올해 말 개관 예정...놀이 중심 체험 콘텐츠 백악기 공룡탐험

전국에서 최초로 어린이 공룡 과학체험관이 전남 해남에 들어선다. 해남군은 우항리 공룡화석지 내 공룡을 주제로 한 어린이 과학체험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어린이 과학체험공간은 공룡박물관 인근 조류생태관을 리모델링해 조성되며, 올해 말 개관할 예정이다. '마이 프렌드 디노(My Friend Dino)'를 주제로 조성되는 체험관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추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놀이 중심 체험 콘

텐츠로 내 친구 디노를 찾아 백악기 공룡탐험을 떠날 수 있도록 구성된다. 야외에는 디노 어드벤처를 조성해 아이들이 활동적으로 놀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내부에는 공룡의 생태와 과학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생태체험존', '신체놀이존', '호기심 탐구존' 등을 조성한다. 재미, 참여, 새로움을 바탕으로 공룡과 어울리며 공룡에 대해서 배우는 특화된 체험을 즐길 수 있다. 36개월 미만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단위 방문객을 배려한 디노라운지, 영유아 휴게실, 디

노플레이 가든도 마련한다. 해남 우항리 공룡화석지는 천연기념물 제394호로 세계에서 가장 큰 익룡 발자국과 보행렬,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물갈퀴 새발자국,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1m 크기의 대형 초식공룡 발자국 등 세계적 학술 가치가 있는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 2007년에는 국내 최대 규모의 공룡박물관이 개관해 매년 20만여 명의 가족 단위 관람객들이 방문하는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공룡화석지로 잘 알려져 있다. 명현관 군수는 "공룡을 좋아하는 어린이들이 공룡과 과학원리를 체험하고 학습해 미래 고생물학자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공간으로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동취재본부



'완도 해양치유 노르딕워킹 코스' 인기 신지 명사십리 중심으로 '등대치유·바다치유·숲치유길' 구성

완도군이 해양기후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조성한 '해양치유 노르딕워킹 코스'가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해양치유 노르딕워킹 코스'는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등대치유길, 바다치유길, 숲치유길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길이는 6.4km(서봉각등대~석화포 선착장)이다. 특히 바다와 산림이 어우러진 등대치유길과 숲치유길은 주민들은 운동 코스로 관광객들은 산책 코스로 많이 찾고 있다. 해양치유를 통한 운동 효과는 꾸준한 실천이 필요한데, 신지면의 주민 5~8명은 매일 오후 노르딕워킹 코스를 이용해 꾸준히 운동을 하면서 그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최선희 씨는 "예전에는 시간이 생겨도 단순

히 쉬기만 했는데, 주변 사람들과 함께 운동을 하다 보니 즐겁고 몸도 가벼워지는 느낌이다"면서 "모임 인원을 늘려서 지속적으로 운동을 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신지 명사십리를 방문한 관광객 박모 씨는 "시간을 내서 가족들과 여행을 왔는데, 코스 중간중간에 탁 트인 바다를 볼 수 있어 좋았고 스트레스도 해소되는 좋은 시간이었다"라고 말했다. 군은 오는 5월에 '해변 노르딕워킹 대회'를 개최하여 해양치유산업 홍보와 함께 노르딕워킹 코스의 매력을 널리 알리고, 지난해 건립된 해양기후치유센터와 연계한 프로그램도 연중 운영할 계획이다. 완도=이민혁기자

진도군, 봄철 대형산불 예방 특별대책 돌입 산불 제로 만들기...예방 활동 강화·조기 출동태세 확립

진도군이 산불 예방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시키고 있다. 최근 강원도 등 대형 산불 발생에 따른 산불 재난 국가위기관리 '경계'에 따라 산불 방지를 위한 총력태세에 들어갔다. 지난 5일부터 오는 4월 17일까지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 기간으로 설정해 '산불 방지 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다.

군은 이 기간 동안 무단 소각 단속과 현장 순찰을 통한 산불 예방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또 산불 취약 지역 마을을 방문해 산불 요인을 제거하고 이장회의 등 각종 주민 모임에서 논두렁과 쓰레기 태우기 금지 등 산불 예방 홍보 활동도 함께 펼치고 있다. 아울러 산불 감시인력 지도 감독과 진도 소방서, 군부대 등 유관기관 간 협조체제도 강화

해 비상연락체계도 구축했다. 군은 공무원의 산불 비상근무를 확대해 산불 발생 시 공무원 비상동원 체계를 구축하고, 5월 말까지 수시로 7개 읍·면 등 현장을 방문해 산불방지 활동 등 캠페인도 실시할 예정이다. 진도군 환경산림과 관계자는 "봄철 건조한 날씨 속에 산불은 작은 부주의가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집중 발생 기간인 봄철에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며 "산불 예방과 신속한 초동 진화로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진도=조상용기자

강진군, 원예특작 중·소형 관정 공급 선제적 가뭄대비...총 1억6천만원 투입

강진군이 장기간 지속된 겨울 가뭄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원예·특작분야 농업인을 대상으로 1억 6천만 원 상당의 중형관정 20공, 소형관정 10공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지난 11일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1~2월 전남지역 누적강수량은 3mm로, 평년 35mm의 8%에 불과할 정도로 물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강진군은 주요 동계작물인 마늘 196ha, 양파 63ha를 재배하고 있어 가뭄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생육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군은 지난 1월 원예특작작물 재배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 접수 후 현지평가 등 대상자 적격여부를 검토해 사업 대상자를



원예용 중형 관정 최종 확정했으며, 가뭄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사업 전량을 즉시 착공할 계획이다. 또 월동작물에 대한 가뭄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적기 급수와 뿌리 분포 지면 복토·피복을 통한 수분 증발 방지 등 가뭄피해 예방을 위한 현장기술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강진=김영일기자



장흥 유치면, 표고버섯 종균 접종작업으로 '활기'

표고버섯 전국 최대 산지로 손꼽히는 장흥군 유치면이 최근 표고버섯 종균 접종 작업으로 활기를 띠고 있다. 유치면은 장흥담 상류에 위치해 측사나 공장 등 특별한 오염원이 없어 장흥군에서도 표고버섯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본격적인 표고버섯 종균 접종 시기를 맞아 현장 영농지도에 나선 유치면행정복지센터는 코로나 확산 방지에 노력하고 있다. 장흥=김도영기자

전라남도 미래를 이끌어갈 히든카드!

세계의 중심으로! 풍요로운 일자리로! 아름다운 미래 가치로!
전남의 미래가 새롭게 펼쳐집니다!

전라남도